

# 국힘 “文대통령, 불공정 선거관리의 몸체…사과하라”

###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서 발생한 부실 관리 논란 직원 호주머니 등 투표함 ‘엉터리 투표관리’ 비판

국민의힘은 7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부실 관리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싸잡아 비난했다.

권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단순히 행정 부실을 넘어 이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얼마나 가볍게 보여주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며 “선거위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명감을 갖고 있었다면 쓰레기봉투, 택배박스, 심지어 직원 호주머니를 투표함으로 쓰는 엉터리 투표관리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당초 선거를 관리하는 정부의 인적 시스템 자체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

로 비정상”이라며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던 대법관 출신 선관위원장, 여당 계열 일색의 위원들로 채웠다. 선관위가 아니라 선거관여위원회라는 비웃음도 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여당 눈치만 보니 사무총장은 혐의하는 국민에게 난동을 부린다고 비하하고 선관위원장은 출근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힐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헌정 사상 단 한번도 유례없이 선거 주무부처인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민주당 현역의원으로 버젓이 임명해줬다”며 “불공정 선거관리를 조장한 몸체는 문재인 대통령이고, 국민 앞에 마땅히 사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민주당 정권

과 선관위의 합작품”이라며 “그간 우리당은 선관위의 편향적 인적구성을 지적하며 야당 추천된 선관위원에 문상부 전 선관위 상임위원을 추천하고 처리를 독촉했지만 민주당은 계속 반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80석 넘는 민주당의 횡포였다”며 “청와대는 임기 마친 조해주 상임위원을 비상임위원으로 계속 재직하겠다는 꼼수도 기획한 바 있다”며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좌편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당시 주심으로 무죄처지 판결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어 “사실상 심판과 선수가 한몸이 돼 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선관위를 이토록 타락시킨 판교판정 중심에 바로 노정희 위원장이 있다.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윤재옥 선거대책본부장은 “선관위는 지금까지 확진자 투표 숫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5일에 투표 못한 확진선거인들이 9



일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적극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본부장은 “9일 선거당일 부정선거 신고센터를 당사에 설치해 운영하겠다”며 “부

실선거 관리 및 불법 의심 신고를 접수해 공명선거, 안심투표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재환기자

## 與 “李 마지막 공식 유세는 광화문” 촛불광장서 피날레

### 공식 유세 후 ‘육성’으로 청년층 호소 총력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오는 8일 광화문에서 20대 대선 공식 유세를 마무리한다.

이번 대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중도·부동층 표심을 지지 호소하고 지난 대선 촛불 집회의 기억을 상기시켜 핵심 지지층을 고무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장은 7일 오전 여의

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마지막 일정은 서울, 경기, 인천, 서울 순”이라며 “수도권 전체를 관통하고 중도, 부동층 유권자에게 강하게 지지를 호소하는 콘셉트”라고 설명했다.

권 부단장은 “마지막 유세의 개념은 2가지다. 오후 9시 이전 확성기를 이용한 마지막 유세는 광화문 일원이 될 것 같다. 청계광장이나 시청 광장, 광화문 광장 부근 중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102조는 오후 9시 이후 확성기를 이용한 야간 연설을 제한하고 있어 유세차를 이용한 세몰이 공식 유세는 광화문에서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다만 공식 유세 이후에도 선거운동이 종료되는 자정 전까지 청년층이 많은 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권 부단장은 “확성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시간대의 마지막 유세는 젊은 층이 운집한 거리에서 선거운동이 보장되는 밤 12시 전까지 최대한 많은 유권자를 만나고 지지를 호소하며 진짜 마지막 유세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마지막 유세 때는 함께 하는냐는 질문에는 “아직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대전, 청주까지 ‘상행선’ 유세를 진행한다.

친노·친분 기반인 부산·울산·경남(PK)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대구·경북(TK) 연고를 살려 보수 표심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대전과 청주 유세에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함께한다.

서선욱기자

## 우상호 “선관위 잘못…쟁점화는 아냐”

### “투표 부정 몰아갈 준비하나…민주주의 흔들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7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대선 사전투표 혼선과 관련, “이 문제조차 쟁점화하려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 본부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어쨌든 본 투표에서 최대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좀 미리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확진자 투표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을 드린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목소리로 질타를 했지만 이 문제가 선거 쟁점이 되어서 어느 쪽의 유불리를 만들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 과정에서 미리 준비된 부정이었다고 몰아갈 준비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라며 “오리더 행정적 미숙함을 질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게 더 중요하겠다”고 했다.

선관위의 난맥상을 비판하면서도 국민의힘

을 비롯한 보수 야당 일각의 ‘선거부정’ 논란 확대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우 본부장은 대선 판세와 관련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종합적으로 본 판단은 초박빙 상태다. 마지막 본 투표에서 어느 쪽이 더 투표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전투표에 참여하신 분들을 현장에서 봐도 20~30대 여성들이 꽤 많이 있었고, 이쪽의 여론 흐름을 좌우하고 있는 커뮤니티의 내용도 보면 이재명 후보 측이 훨씬 더 우세해 보인다”며 “중도 부동층으로 분류되었던 20~30대 여성 표심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옮겨오고 있다고 보고 되게 반기고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 판세에 대해서 “지금 인천·경기는 우리가 경합 우세로 보고, 서울이 사실은 열세였는데 지금은 다 박빙 열세로 전환되었다. 서울 분위기가 많이 호전되고 있어서 기대를 좀 하고 있다”며 “서울에서 이기면 이긴다”고 했다.

최이슬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